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올 6월 미 동부 항만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최고치 경신



물류정책·산업동향

1. PSA, CrimsonLogic의 최대 주주로 등극
2. 머스크·IBM, 글로벌 블록체인 시스템 TradeLens 개발
3. 3중 밀폐 벌크 화물 적재 시스템, 배출가스 최소화
4. 꾸준한 성장세의 베트남 물류시장, 고비용 등 보완책 마련 시급

명사 스피치

“단기적으로 베트남 물류시장의 호황은 과거 중국처럼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베트남 물류시장의 호황은 6부 능선을 넘어섰으며, 포스트 베트남은 인접 국가인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물류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로는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첨단 IT기술을 갖춘 인도와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희 티에스엘네트웍스 대표이사
(2018. 8. 9. /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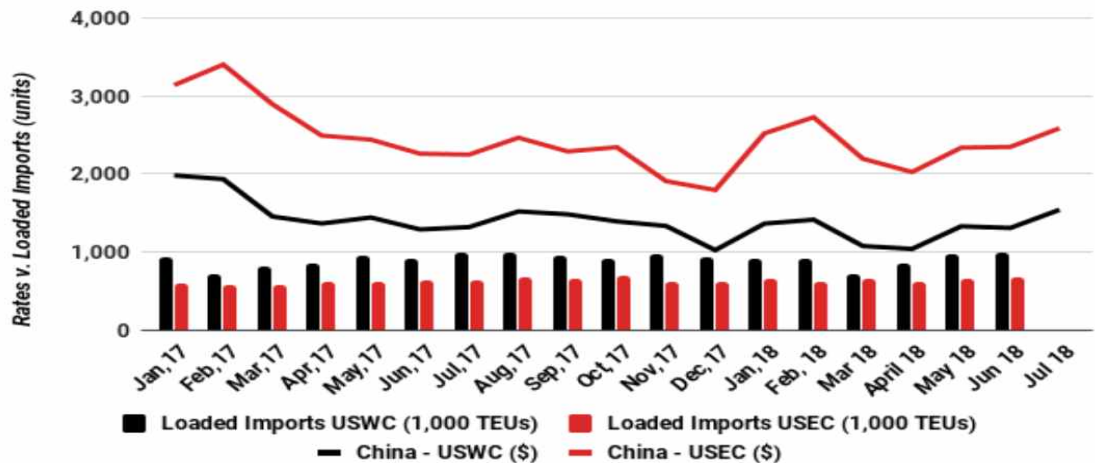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올 6월 미 동부 항만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최고치 경신

미 동부/서부 항만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



자료 : www.supplychaindive.com

- 미 동부 항만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파나마운하 확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증가함
 - 특히 동부 상위 4개 항만의 6월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약 67만 7천 TEU로 이는 기존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 8월 대비 0.13%, 전년 동월 대비 7.31% 증가한 수치임
 - 한편 서부 4개 주요 항만의 6월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98만 4천 TEU로 이는 2016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 미 서부 항만에 견주어 동부 항만의 수입화물 처리실적은 아직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동부 항만의 항만시설 확장 투자에 따른 성과가 물동량 증가 추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6년 6월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태평양발 대서양 항로의 파나마스급 선박(13,000 TEU)을 수용하기 위해 동부 항만은 준설 프로젝트, 신규 크레인 및 기타 물류 프로젝트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함
- 한편 일각에서는 화주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8월 전통적인 운송 피크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수입을 서두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물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요금은 떨어지지만, 올해는 4월 이후 요금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7월 초 수치를 살펴보면 주요 항만들의 수입이 4.4% 하락해 6월 물동량이 비정상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주요 항만들의 7월 물동량 하락은 해운 얼라이언스의 선박 재배치 및 항로 변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힘
 - 롭비치항 관계자는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로 인해 무역 활동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참고자료 : www.supplychaindive.com 2018.8.13.

PSA, CrimsonLogic의 최대 주주로 등극

-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PSA 인터내셔널(PSA International)은 싱가포르 소재 무역 촉진 서비스 제공업체인 크림슨로직(CrimsonLogic)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발표함
 - 크림슨로직의 주주는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산하 정부기관인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이 55%, 나머지 45%는 PSA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었음
 - ※ 크림슨로직은 싱가포르 정부 서비스 공급 업체로서 국경을 초월한 무역 거래를 촉진하는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월 PSA는 싱가포르 통신(Singapore Telecommunication)과 싱가포르 민간 항공 당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 크림슨로직 지분의 중 70%를 확보함으로써 최대 주주로 등극함
 - 이를 통해 PSA는 자사의 멀티 모달(multi-modal) 물류 공급망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크림슨로직 또한 PSA의 상업적 통찰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주요 이머징 마켓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PSA는 기존의 항만터미널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멀티 모달 물류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가치 차별화 요소를 구축해 왔음
 - 지난 4월 크림슨로직은 PSA와 협력해 물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재무 프로세스의 상호 통합이 가능한 'CALISTA'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음
 - CALISTA는 무역 중개 및 화주의 상품 운송, 무역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규제 및 재정과 같은 물리적/비물리적 활동을 결합시킴으로써 물류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함
 - 현재까지 CALISTA는 최대 4,00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연결했으며 약 1,000건 이상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등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음
 - PSA와 크림슨로직은 향후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방식으로 국경간 무역 및 시장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무역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PSA의 CEO인 탄청명(Tan Chong Meng)씨는 “우리는 크림슨로직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기관, 화주, 물류서비스 이용자 등 물류 공급망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에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무역 및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자료 : Seatrade Maritime News, 'CrimsonLogic set for growth as PSA takes majority s take', 2018.8.18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머스크·IBM, 글로벌 블록체인 시스템 TradeLens 개발

- 머스크와 IBM은 TradeLens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해운물류 산업에 먼저 테스트한 후 전 세계 공급망에 적용할 예정이다
 - TradeLens는 머스크와 IBM 간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솔루션으로 효율성 및 안전성을 증대시켜 글로벌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됨
- 현재 TradeLens의 얼리어답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9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34개의 해양 게이트웨이(Marine Gateway)가 TradeLens 플랫폼에 설치될 예정임
 - PS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패트릭 터미널, 모던 터미널 홍콩, 헬리팩스항, 로테르담항, 빌바오항, PortConnect, PortBase, 필라델피아 Holt Logistics 등 전 세계 20개 이상의 항만 및 터미널 운영사가 포함되어 있음
 - 이 항만들은 세계 각지의 관세청, 세관 브로커, BCO(Beneficial Cargo Owner), 화물 포워더, 운송회사, 물류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APM 터미널 네트워크의 파일럿 테스트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함
 - 해운선사로는 머스크를 비롯하여 Pacific International Lines(PIL), Hamburg Süd가 참여하고 있음
- TradeLens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블록체인의 Smart Contract 기술을 통해 IoT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컨테이너 온도, 무게 등의 정보가 포함된 운송 데이터 및 관련 문서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음
 - 또한 베타 프로그램으로 출시된 무역 문서 모듈인 ClearWay를 통해 수입수출업자, 세관 브로커, 제3의 기관(세관, 정부관계기관, NGO 등)들이 조직 간 협업 및 정보 교환, 보안 향상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함
- IBM Global Industries, Solutions and Blockchain의 수석 부사장인 Bridget van Kralingen씨는 매년 4조 달러치의 상품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을 디지털화하는데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함

■ 참고자료 : Porttechnology.org, Maersk and IBM Introduce Global Blockchain System, 2018.8.9.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3중 밀폐 벌크 화물 적재 시스템, 배출가스 최소화

-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IMO¹⁾는 2020년 1월부터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속의 황함유량을 0.5%이하로 제한함
 - 또한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할 계획임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미국 LA항, 유럽 선진항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MP²⁾의 국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Siwertell은 3중 밀폐 적재 시스템을 개발해 벌크 화물 적재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했음
 - 스웨덴의 항만 장비 전문 업체인 Siwertell은 3중으로 밀폐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벌크 화물 선박 적재 시스템을 개발해 2019년 8월까지 아일랜드의 더블린항에 적용할 예정임
 - 정격처리속도가 시간당 600t이며, 10,000t까지 적재 가능함
 - 다양한 벌크 화물과 다양한 선박 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과 친환경적 장비라는 이점을 가짐
-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항만 장비 시장 선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항만공사가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친환경 장비를 국산화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Siwertell이 설계한 벌크 화물 적재 시스템



자료 : <http://www.portstrategy.com/news101/world/europe/new-ship-loading-system-minimises-emissions>

■ 참고자료 : <http://www.portstrategy.com>, 2018.08.15.

김효재 연구원

051-797-4686, hj_kim@kmi.re.kr

1)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2)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육상전원공급설비로써 선박 접안 시 육상에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

꾸준한 성장세의 베트남 물류시장, 고비용 등 보완책 마련 시급

- 최근 World Bank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8년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LPI는 2014년 48위, 2016년 64위를 기록하는 등 평균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2016년 대비 39위 상승한 25위를 기록함
 - 이는 World Bank가 LPI를 평가한 이래 가장 높은 순위이며, 싱가포르(7위), 태국(32위)에 이어 아세안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
 -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기업들의 역량 및 수준, 화물 추적 능력과 관련된 지표가 대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또한 2017년도 베트남의 수출입 총액이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물류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수출입액은 2015년 3,000억 달러에서 2017년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에는 5,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 되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의 물류비용은 주변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 상승과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베트남의 물류비용은 GDP 대비 약 21% 수준으로 중국 19%, 태국 18%, 일본 11%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물류비용 가운데 운송비용이 약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높은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세금,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공식적인 비용 부담 등이 베트남 물류시장의 경쟁력 하락 원인이 되고 있으며, 물류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막대한 비용 부담 및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참고자료 : english.vietnamnet.vn, 2018.8.20.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